# 인터넷 상에서의 윤리적 인지와 도덕적 행동 관련성 : 대학생의 도덕 판단력과 정보윤리 판단력, 인터넷윤리의식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장순선*, 이옥화**

## 요 약

현재 인터넷윤리교육은 통합적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윤리교육 모델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인지적인 영역과 행동적인 영역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윤리적 인지가 도덕적 행동으로 실행될 것으로 기대한 학습모델이다. 그러나 인터넷윤리교육이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인한 문제는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인터넷윤리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윤리적 인지와 도덕적 행동이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현실에서의 도덕적 행동에 관한 측정 도구는 '도덕 판단력', 인터넷 상에서의 도덕적 행동은 '정보윤리 판단력', 인터넷에서의 윤리적 인지는 '인터넷윤리의식' 자가진단 도구를 사용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들의 도덕 판단력과 정보윤리 판단력, 인터넷윤리의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현저히 낮았다. 도덕 판단력과 정보윤리 판단력은 약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현실에서의 행동과 인터넷 상에서의 행동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윤리 판단력, 인터넷윤리의식 간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즉 인터넷 상에서의 인지와 행동은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인터넷윤리교육은 윤리적인지가 윤리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에 근거한 윤리교육학습 모델과는 다른 교육모델을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인터넷윤리교육은 윤리적 인식과 도덕적 행동을 각각 중요한 교수영역으로 다루어야 한다.

**주제어** : 윤리적 인지, 도덕적 행동, 도덕 판단력, 정보윤리 판단력, 인터넷윤리의식

# Relationship of Ethics Consciousness in Internet and Moral Behavior : Analysis of The Relation among Moral Judgement, Information Ethics Judgement and Internet Ethics Consciousness of Undergraduate Students

Jang SoonSun*, Lee OkHwa**

## ABSTRACT

Presently the instructional model for internet ethics education is modeled after the integrated morality. The model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ethical awareness will lead to ethical activities which is based on the theory that cognition is correlated to the behavioral domains. But the side effects of the information society in the cyber space increased even when the education for the awareness of ethics in the cyber space has been taught more aggressively than before. In this study, the relation of the cognition for information ethics and the ethical behavior in the cyber space was analyzed in order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internet ethics education model. The tools used are the 'DIT (Defining Issues Test)' to measure the behavioral ability in the physical world, the Information Ethics Judgment to measure the behavioral ability in the cyber space, and the self diagnostic tool of 'Internet ethics awareness' to measure the level of cognitive knowledge for internet ethics. The correlation of three measures was analyzed.

The results were college students' levels of ethics from three tools from are considerably low. Moral judgement and information ethics judgement were not correlated which means that the behavior in the physical world was not necessarily correlated to the behavior in the cyber space. The three measurement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correlated. Therefore the cognitive awareness for the information ethics were not necessarily correlated to the ethical behavior in the cyber space. Ethical cognition and the moral behavior need to be taught with equal emphasis as they do not have strong correlation.

**Keywords** : Ethics Consciousness, Moral Behavior, Moral Judgement, Information Ethics Judgement, Internet Ethics Consciousness.

* 정 회 원: 영동대학교 스마트IT학부 겸임교수
** 종신회원: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3년 12월 18일, 심사완료: 2014년 2월 7일, 게재확정: 2014년 2월 27일

# 1. 서론

정부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스팸메일, 욕설, 성인광고 등의 정보공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국민 인터넷윤리교육을 추진하였다. 인터넷윤리교육은 정보화 사회 역기능예방과 정보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창의적인 정보 활용사례학습 등 정보문화와 정보 윤리교육을 통해 디지털 시민의식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1]. 2002년부터는 IT 선진 문화시민 의식을 배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해 청소년, 교사, 학부모,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생애주기별 인터넷윤리교육도 실시하고 있다[2].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의 역기능인 인터넷 중독, 사이버 범죄 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들은 공격적이 되고, 정체성이 복합적이고 유동적이며, 탈억제적인 일탈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3].

청소년들은 2007년 7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중등교육에서 정보윤리 수업을 받고 있고 그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4][5][6][7][8].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터넷 사용시간이 더 많은 대학생들의 인터넷윤리교육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2010년 자료에 의하면 82개 대학에서 인터넷윤리교육 과목이 개설되어있고 인터넷윤리교육 전문 교강사의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강의내용도 대부분 일방적 내용 전달 중심의 강의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효과적인 인터넷윤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9].

전통적인 윤리교육에서는 윤리적 인지가 윤리적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10]. 즉 윤리적 인지를 가르치게 되면 윤리적 행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모델이다. Lickona, T.(1991)은 통합적 도덕성이라는 이론을 통해 인간의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행동적 영역이 상호관련성이 높다고 하였다[11]. 이 세 영역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 영역은 다른 영역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윤리교육모델들에 근거하여 사이버 상에서 인터넷 윤리교육도 이루어졌다. 즉 인터넷에서 윤리적 인식이 사이버 상에서의 윤리적 행동을 유발시킬 것을 전제하는 교육모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윤리교육의 모델이 인터넷 상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인된바가 거의 없다. 즉 인터넷상에서의 윤리 의식과 윤리적 행동이 기존 전통 윤리교육 모델에서처럼 강하게 연대되는지에 관한 이론적 근거나 연구결과를 찾기 어렵다.

실생활에서 도덕적인 사람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도덕적일까? 물리적 공간에서 보이는 인간의 도덕성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비슷한 도덕성을 보일 것인가? 만일 다르다면 얼마나 다를 것인가? 본 연구의 결과는 물리적 공간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도덕성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같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는 많은 인터넷 윤리교육에 새로운 방향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교 일학년 학생으로 하였다. 이들은 비교적 자유시간이 많아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고, 성인으로서 인터넷에서의 활동 폭을 넓혀가는 시기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윤리교육이 많이 실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도덕적 행동 및 인터넷 윤리에 관한 인지적 수준을 파악하고 그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인터넷윤리교육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도덕 판단력, 정보윤리 판단력, 인터넷윤리의식 수준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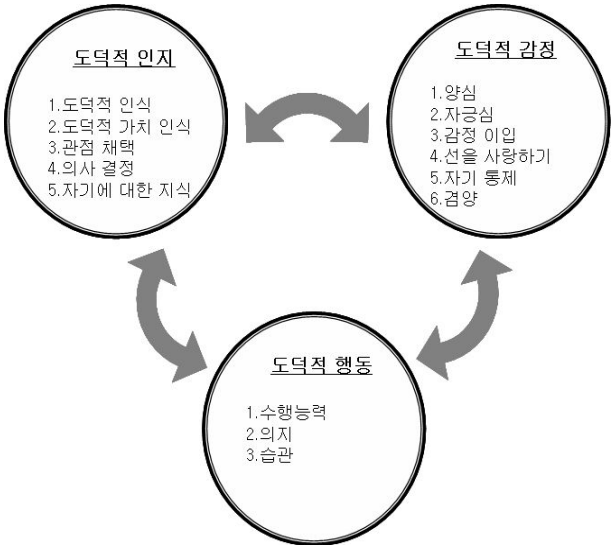
둘째, 대학생들의 도덕 판단력, 정보윤리 판단력 인터넷윤리의식은 서로 관련이 있는가?

# 2. 선행연구 분석

## 2.1 통합적 도덕성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은 접근 방법 면에서 종래에 표방하던 인지적 접근을 넘어서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게 하였다[10]. 전통적 윤리교육모델로 많이 사용되는 Lickona, T. (1991)의 통합적 도덕성에 의하면 도덕성은 인지・감정・행동 각 구성요소들이 [그림 1]의 화살표같이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때 발달한다. 통합적 도덕성 이론이란 도덕성 관련 요소인 인지적, 정의적 그리고 행동적 영역을 고루 다 포함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12]. 현재 인터넷윤리교육 또한 통합적 도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부(2013)의 지침에 청소년 및 성인의 정보통신윤리교육은 통합적 도덕성에 의한 교육이어야 한다[8]고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경우, 통합적 도덕성의 요소인 인지와 행동이 사이버 상에서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여 인터넷윤리교육의 교수법에 제안을 하고자 한다.




[그림 1] Lickona, T. 훌륭한 인격의 구성요소[12]

## 2.2 도덕 판단력

도덕·윤리 연구와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도덕적 행동의 표출에 있다[13]. 인간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은 실제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개인의 도덕적인 행동을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때 도덕적 행동을 예측하는 도구로 '도덕 판단력' 을 사용한다. 도덕 판단력이란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를 결정하는 능력으로, 도덕 판단력이 있어야 도덕적 행동이 일어나게 된다. 즉 도덕적 판단력이 높아지면 이것이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14]. Rest(1979)의 연구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력과 행동은 경우에 따라 .57~.76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15]. 그러므로 도덕적 사고를 재는 도덕 판단력 (DIT: Defining Issue Test)을 통한 도덕성의 측정은 도덕적 행동의 실천 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에서의 도덕적 행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도덕 판단력을 사용하였다.

도덕 판단력을 알아내기 위한 측정도구는 Kohlberg와 Rest가 개발한 도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16]. Kohlberg는 MJI (Moral Judgement Interview) 라는 도덕 판단력 테스트를 개발하였고 Rest는 DIT(Defining Issues Test)를 개발하였다. Kohlberg는 나이가 들수록 도덕성은 <표 1>과 같이 발달한다고 하였다[17].

<표 1> Kohlberg 도덕성 발달 단계 이론[17]

| 수준 | 단계 | Kohlberg 도덕성 발달 | 연령 |
|---|---|---|---|
| 전인습적 도덕 수준 (preconventional level) | 1 | 벌 회피·복종 | 3-11세 정도 |
| | 2 | 욕구 충족·거래 | |
| 인습적 도덕 수준 (conventional level) | 3 | 착한아이 평판 중시 | 12-25세 정도 |
| | 4 | 법·질서중시 | |
| 후인습적 도덕 수준 (postconventional level) | 5 | 사회계약 | 26세 이상 |
| | 6 | 보편적 윤리 | |

Kohlberg의 MJI도구는 면담을 통한 분석 방법으로 주관적이고 분석 시간이 많이 걸렸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Rest는 객관적인 표준검사DIT(Defining Issue Test)를 개발하였다. DIT는 도덕 판단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P(%)점수로 나타내고, 이 점수는 <표 1>의 Kohlberg의 후인습적 도덕 수준 즉 5, 6단계에 이른 비율을 나타낸다. DIT는 현재 개인의 도덕성 수준을 알아보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구로 [18], 95점이 만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14].

한국에서는 DIT를 한국형으로 만든 서울대 도덕심리연구실의 KDIT(Korea Defining Issue Test)를 사용하고 있다.

## 2.3 정보윤리 판단력

김항인(2005)은 인터넷윤리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도덕 판단력을 응용하여 정보윤리 판단력을 개발하였다. 사이버상에서 얼마나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즉 정보윤리 판단력을 측정하기 위해 정보윤리 관련 사례의 도덕적 딜레마를 제시하고 측정

방법은 기존의 도덕 판단력 발달 검사를 적용하였다. 검사 도구는 동일한 딜레마를 제시하고 서술형(OISE,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과 선택형(DIT)으로 응답하는 두 가지로 되어있다. 서술형은 6개의 주관식 질문을 하고, 선택형은 갈등을 해결할 때 고려했던 질문의 중요도를 표시하는 12개의 질문과 그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항을 순서대로 4개 선택하게 하는 형식을 취한다. 서술형은 질적 분석이므로 전문가의 측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적인 측정이 어렵다. 서술형, 선택형 두 검사가 동질성을 가진다는 연구결과[5]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정보윤리 판단력의 유형 중 도덕 판단력 검사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표준화된 채점이 가능한 선택형을 선택하였다. 정보윤리 판단력은 도덕 판단력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이들의 관계를 분석하면 인터넷 생활과 현실에서의 도덕적 행동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김항인(2005)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P 점수는 12.02이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보윤리 판단력이 향상되다가 6학년은 4학년보다 낮아진다고 보고[5]하였다. 이 점수는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들의 P 값과 비교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대학생의 정보윤리수준이 어떠한지 비교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2.4 인터넷윤리의식

인터넷윤리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는 도구로는 인터넷 중독 검사, 사이버폭력지수, 사이버윤리지수 평가도구, 정보통신윤리의식 검사 등이 있다[7]. 추병완(2009)은 초등, 중·고등,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윤리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인터넷윤리의식 자가진단 도구를 개발하였다. 인터넷윤리의식이란 인터넷 이용자들이 갖추어야 할 윤리적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말하며 자율, 존중, 책임, 참여로 구성되었다.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표 2>과 같다[19].

<표 2> 인터넷윤리의식의 4 구성 요소에 대한 조작적 정의[19]

| 개념 | 조작적 정의 |
|---|---|
| 자율 | 자신의 내적 법칙에 근거해서 자기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의미함과 동시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스스로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옳음과 그름, 좋고 나쁨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
| 존중 | 자기 자신과 타인을 높여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개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동시에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인정하고 예우함으로써 타인도 자기 자신과 똑같은 존엄성을 갖는 인격체로 보려는 태도를 말한다. |
| 책임 | 개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생각하고,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말한다 |
| 참여 | 주체적 정보 이용자로서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능동적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추병완 (2009)의 연구에서 인터넷윤리의식의 자가진단 결과 의식 수준이 매우 낮은 학생들 즉 16유형의 비율이 초등학생이 13.60%이고 중·고등학생은 28.27%에 비해 대학생은 36.70%로 나이가 들수록 인터넷윤리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9]. 대학생의 인터넷윤리의식이 현재에는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표 3> 인터넷 윤리의식의 유형[19]

| 유형번호 | 자율 | 존중 | 참여 | 책임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11 | ⇩ | ⇩ | ⇧ | ⇧ |
| 12 | ⇧ | ⇩ | ⇩ | ⇩ |
| 13 | ⇩ | ⇧ | ⇩ | ⇩ |
| 14 | ⇩ | ⇩ | ⇧ | ⇩ |
| 15 | ⇩ | ⇩ | ⇩ | ⇧ |
| 16 | ⇩ | ⇩ | ⇩ | ⇩ |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2012년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충북 소재 Y대학교 고급컴퓨터활용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1학년 150명을 대상으로 검사도구를 통한 자료 수집을 하였다.

### 3.2 검사도구

#### 3.2.1 도덕 판단력 검사: KDIT(Korea Defining Issue Test) 도구

서울대학교 도덕심리 연구실에서 제공하는 KDIT는 문용린(1986)이 Rest의 DIT를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번안하여 개정한 도구이고 이를 KDIT라고 부른다[20]. KDIT는 간편형(3개 딜레마 사용)과 종합형(6개 딜레마 사용)으로 구성되며 도덕성 발달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KDIT는 실생활속에서 도덕적 행동능력을 예측하기 위한 도구로 초등학교 학생도 상요할 수 있는 간편형 검사지 KDIT가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편의와 설문지 분량, 조사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KDIT 간편형을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3개의 딜레마와 각각 1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고 95점이 최고점수이다.

#### 3.2.2 정보윤리 판단력 검사

김항인(2005)은 도덕 판단력에 대한 이론에 기초하여 사이버상에서 얼마나 도덕적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정보윤리 판단력 검사 도구를 개발[5]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윤리 판단력 검사 도구 중 도덕 판단력 검사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표준화된 채점이 가능한 선택형 DIT 검사를 하였다. 설문 문항은 1개의 딜레마와 1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고 18점이 최고점수이다.

#### 3.2.3 인터넷윤리의식 자가진단

인터넷 윤리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윤리교육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CBT (computer-based testing) 기반의 대학생 자가진단 (http://www.nethics.kr/intro.jsp)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5점 척도의 24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넷윤리의식 수준 채점은 자율, 존중, 책임, 참여의 4 영역별로 30점이 만점이고 이의 해석은 추병완이 개발한 인터넷윤리의식의 유형은 <표 3>에 근거한다. 즉 4 영역 모두 24점 이상이면 1유형, 모두 24점 미만이면 16유형이 된다.

### 3.3 통계 처리

KDIT 검사지는 코딩 후 서울대학교 도덕심리 연구실에 채점을 의뢰하여 채점 결과를 받았다. 정보윤리 판단력 DIT 검사도구는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채점하였다. 인터넷윤리의식 조사는 코딩 후 CBT 방식으로 입력하여 결과를 얻었다.

각 변인들의 통계처리는 SPSS 8 평균비교, 변인 간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 4. 연구결과

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결측값 2명을 제외한 148명으로 분석하였다.

<표 4> 연구대상

| 성별 | 인원 수 | 비율(%) |
|---|---|---|
| 남 | 113 | 76.4 |
| 여 | 35 | 23.6 |
| 합계 | 148 | 100 |

### 4.1 도덕 판단력

<표 5>와 같이, 도덕 판단력 P 점수는 34.2이다. 선행연구에서의 성인의 P점수 평균들과 비교해 보면, 김은설 외(2011)의 연구에서는 38.72[14], 정옥분 외(2001)의 연구에서는 41.67[21], 윤지영(2000)의 연구에서는 40.56[22], 김윤정(2008)의 연구에서는 41.16[23]인 것에 비하면 낮은 점수이다. 이는 본 연구 대상인 대학교 1학년생들의 현실에서의 도덕적 행동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도덕발달 단계별로 보면, 인습적 도덕 수준인 3, 4단계, 후인습적도덕 수준인 5단계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왔다. <표 1>과 같이 3,4단계는 12-25세의 시기에 해당되므로 청소년 및 대학생들이 이에 해당되는 시기이

다. 3단계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교 일학년생들은 중고등학생 정도의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도덕 판단력 결과

| 단계 | 전인습적 도덕 수준 | | 인습적 도덕 수준 | | 후인습적 도덕 수준 | | | 도덕 판단력 (P점수) |
|---|---|---|---|---|---|---|---|---|
| | 1 | 2 | 3 | 4 | 5A | 5B | 6 | |
| 남 | 9.8 | 3.2 | 28.2 | 24.3 | 20.9 | 3.0 | 8.3 | 32.2 |
| 여 | 8.5 | 1.8 | 27.0 | 21.9 | 25.8 | 5.6 | 9.3 | 40.8 |
| 평균 | 9.5 | 2.9 | 27.9 | 23.7 | 22.0 | 3.6 | 8.6 | **34.2** |

남자에 비해 여자의 도덕 판단력이 높았다. 대학생의 도덕 판단력을 측정한 선행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23].

## 4.2 정보윤리 판단력

정보윤리 판단력은 <표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12.8이며, 김항인 (2005)의 연구 결과에서 조사된 초등학생의 정보윤리 판단력 P점수 평균 12.02[5]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는 대학생들의 인터넷 상에서의 도덕적 행동 수준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의 도덕적 행동에 관한 교육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표 6> 정보윤리 판단력 결과

| | 정보윤리 판단력 |
|---|---|
| 남 | 12.5 |
| 여 | 13.5 |
| 평균 | **12.8** |

## 4.3 인터넷윤리의식

인터넷윤리의식은 <표 7>과 <표 8>과 같이, 평균 71.0이며, 16유형인 비율이 79.7%이었고 추병완 (2009)의 연구에서 대학생 인터넷윤리의식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표 6>과 [그림 2]와 같이 최고점수 30점에 비해 자율 영역이 18.3으로 가장 높고 책임 영역이 17.1로 가장 낮았다. 책임 영역은 개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생각하고,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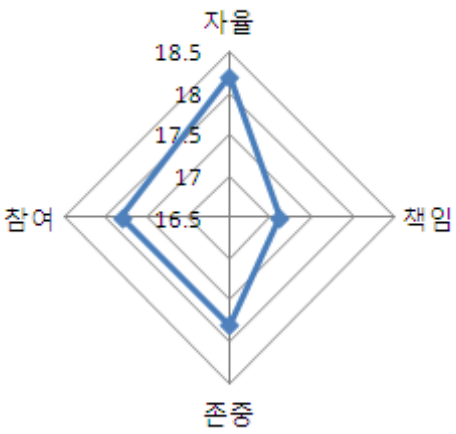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인터넷윤리의식이 매우 저조한데, 4가지 분야에 관한 의식이 다 낮지만 특히 책임에 관한 부분이 의식이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7> 인터넷윤리의식 자가진단 결과

| | 인터넷 윤리의식 | 자율 | 책임 | 존중 | 참여 |
|---|---|---|---|---|---|
| 남 | 71.2 | 18.5 | 17.2 | 17.8 | 17.7 |
| 여 | 70.6 | 17.8 | 16.8 | 17.8 | 18.2 |
| 평균 | **71.0** | 18.3 | 17.1 | 17.8 | 17.8 |

<표 8> 인터넷윤리 자가진단 결과(유형별)

| 유형 번호 | 인원 수 | 비율 (%) | 우수 영역 | 유형 |
|---|---|---|---|---|
| 12 | 10 | 6.8 | 자율 | 인터넷윤리의식미흡사용자-인터넷윤리의식이낮아지금빨간불이켜져있는상태입니다. |
| 13 | 8 | 5.4 | 존중 | |
| 14 | 8 | 5.4 | 책임 | |
| 15 | 4 | 2.7 | 참여 | |
| 16 | 118 | 79.7 | X | 인터넷윤리의식 결여 사용자- 사이버 공간을 해치는 독버섯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림 2] 인터넷윤리의식 영역별 점수

인터넷윤리 자가진단 결과, 높은 단계는 존재하지 않고 가장 낮은 단계인 16단계가 79.7%나 되었다. 이는 인터넷윤리의식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고 인터넷윤리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근거가 된다. 그 중 특히 윤리의식이 낮은 책임 영역에 관한 교육은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윤리의식이 낮은 이유는 인터넷윤리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윤리교육에 대한 접촉 기회가 적을수록 인터넷윤리의식이 낮은 것으로 보고[19]되고 있다. 본 연구 대상인 대학생들의 학교가 읍에 소재해 있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여 여가시간을 주로 인터넷게임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사용 시간이 많으나, 이에 따른 인터넷 윤리 교육 기회는 적을 경우 모르고 인터넷에서 비윤리적 행동을 할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청소년에 비해 인터넷을 하는 시간이 많고 성인이 되면서 인터넷에서의 활동 폭이 넓어지고 있으므로 대학생들의 인터넷윤리교육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4.4 도덕 판단력과 정보윤리 판단력, 인터넷 윤리의식 간의 관계

도덕 판단력과 정보윤리 판단력, 인터넷윤리의식( 하위 4영역)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표 9> 도덕 판단력과 정보윤리 판단력, 인터넷윤리의식 간 상관관계

| | 도·판 | 정·판 | 인·의 | 자율 | 책임 | 존중 | 참여 |
|---|---|---|---|---|---|---|---|
| 도·판 | 1 | | | | | | |
| 정·판 | .233** | 1 | | | | | |
| 인·의 | .003 | .045 | 1 | | | | |
| 자율 | .055 | -.052 | .107 | 1 | | | |
| 책임 | -.045 | -.053 | .660** | -.351** | 1 | | |
| 존중 | -.036 | .200* | .534** | -.287** | .247** | 1 | |
| 참여 | .044 | -.013 | .565** | -.082 | .248** | -.022 | 1 |

*p<.05 **p<.01

- 도·판 : 도덕 판단력
- 정· 판 : 정보윤리 판단력
- 인· 의 : 인터넷 윤리 의식

먼저 도덕 판단력과 정보윤리 판단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도덕 판단력과 정보윤리 판단력 간에는 .233의 유의적인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설명력이 23.3%로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 도덕적 행동이 인터넷 세계에서도 도덕적 행동과 상관관계가 있기는 하나 그 관계가 약해서 둘 사이에 별로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윤리 판단력과 인터넷윤리의식과는 .045로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다. 이는 인터넷 상에서의 행동과 인지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다. 행동과 인지는 통합적 도덕성에서 서로 상호유기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한 통합적 도덕성 이론이 인터넷 상에서는 맞지 않는 결과이다. 기존의 윤리교육 모델이 통합적 도덕성 이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인터넷윤리교육도 이 모델을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로 보아 앞으로의 인터넷윤리 교육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져서 행동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이 서로 독립적이고 대등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윤리 판단력과 인터넷윤리의식의 4영역 중 존중은 다른 3영역이 부적 상관관계를 지니는 반면 .200의 약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 5. 결론

윤리교육은 인지가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인지적 접근에서 인지와 행동이 서로 유기적 상호관계에 있다는 통합적 도덕성 접근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합적 도덕성 접근에 근거한 윤리교육 모델은 인터넷윤리 교육의 기반으로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사회에서의 도덕적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한 사용되는 통합적 도덕성 기반의 인터넷윤리 교육 모델이 인터넷에서도 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데 적합한 교육 모델인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들의 윤리적 인지와 도덕적 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즉 실생활 속에서의 도덕적 행동은 인터넷상에서의 도덕적 행동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인터넷윤리 인지적 지식은 인터넷에서의 도덕적 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도덕 판단력과 정보윤리 판단력, 인터넷윤리의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도덕 판단력은 인습적 도덕 수준과 후인습적 도덕수준의 초기에 머물고 있어 중학교 수준부터 연령대에 맞는 발달 수준을 고르게 다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 일학년 학생들의 정보윤리 판단력 수준은 초등학생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 인터넷윤리의식 수준은 최하위급인 16등급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책임에 관한 인식은 낮아서 인터넷에서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지식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대학에서의 인터넷윤리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의 윤리의식 수준이나 윤리적 행동 수준이 낮은 것은 인터넷윤리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서의 도덕적 행동은 한 개인의 윤리 문제가 아니라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것이다. 대학에서 인터넷윤리 관련 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할 것이다.

둘째,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도덕 판단력, 정보윤리 판단력, 인터넷윤리의식 모두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보통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의 경우 게임에 중독이 되는 사례가 더 많고 인터넷에서커뮤니케이션에 약한 것을 고려하면[24], 남학생에게 좀 더 많은 홍보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터넷윤리 교육에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도덕 판단력과 정보윤리 판단력은 서로 상관관계가 낮았다. 이는 현실과 인터넷 상에서의 행동은 서로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실에서 도덕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인터넷 상에서의 도덕적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현실에서의 윤리 교육을 그대로 인터넷윤리 교육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정보윤리 판단력과 인터넷윤리의식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는 인터넷상에서 행동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인터넷윤리 교육은 인지와 행동이 유기적으로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기존 윤리교육 모델에서 벗어나, 윤리적 인지와 도덕적 행동에 각각 중점을 두어 함께 교육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추후 윤리적 인지와 도덕적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과 교수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대상인 학교가 읍소재지에 있고 150명을 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가 어렵다고 본다. 도시 대학생과 비교 또는 인터넷윤리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과 비교하는 연구도 이어질 필요가 있다.

향후 대학생들이 인터넷에서 도덕적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모델이 더 세분화되고 정교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 교육의 현실을 반영하여 비용 절감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학생들의 인터넷윤리 교육 모델을 제안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1 교육정보화백서**. PM 2011-1.

[2] 행정안전부 (2012). **2012 국가정보화백서**.

[3]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2011). **인터넷 윤리**. 이한출판사

[4] 김한성 (2011). 고등학생의 도덕성 발달수준과 정보윤리의식 간의 관계분석. **고려대학교정보창의교육연구소 정보창의교육논문지, 5**, 23-29.

[5] 김항인 (2005). 정보윤리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 **도덕윤리과교육연구**, 225-254.

[6] 김민선, 김한성, 이원규 (2012). 정보윤리판단력 측정을 위한 이슈 중심의 딜레마 개발. **한국컴퓨터교육학회지, 15**(4), 13-24.

[7] 김성식, 유형근, 이채영, 조성환 (2009). 중학생용 정보통신윤리의식 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12**(1), 145-169.

[8] 교육부 (2013). **정보통신윤리 교원 연수 자료집**. 교육부, TM 2013-23.

[9] 강성희 (2012).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 전후의 인지·정의·행동 영역별 비교-저작권 침해 중심으로-. **인터넷윤리논문집, 2**, 43-54.

[10] 조난심 (2002).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특징과 개선 방향**. http://classroom.re.kr/uploadfile/content/co

ntent03/second08/data01/sub06/, 2013.11.24. 검색.

[11] Lickona, T. (1991). *Educating for Character : How Our Schools Can Teach Respectand Resoponsibility*. New York: Bantam Books.

[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청소년 도덕성 발달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 박장호·추병완 (1998) 옮김. **인격교육론**. 서울 백의.

[14] 김은설 (2011). 보육교사의도덕성과윤리실천 수준의관계연구.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15**, 207-226.

[15] Rest, J. (1976). New approach in the assessment of moral judgement, in T. Lickona(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8-220.

[16] 이원봉, 박균열 (2012). **도덕 판단력 측정 : MJT와 DIT를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

[17] Anne Colby, Lawrence Kohlberg, John Gibbs, Marcus Lieberman, Kurt Fischer and Herbert D. Saltzstein (1983). A Longitudinal Study of Moral Judgmen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8*(1/2), 1-124.

[18] 홍성훈 (2004). 예비 및 현직 교사의 도덕판단력 측정을 위한 기초 연구-DIT와 TTMR을 활용하여. **도덕윤리과교육, 18**, 176-177.

[19] 추병완 (2009). 인터넷윤리의식 자가진단 결과. **인터넷윤리**, 12월호, 54-59.

[20] 문용린 (1986). 인지 발달론의 관점에서 본 도덕성 발달 연구의 문제와 전망. **교육이론, 1**(1), 55-83.

[21] 정옥분, 곽경화 (2001). 성년기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정의지향의 도덕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12) 225-238.

[22] 윤지영 (2000). **비서직 종사자의 도덕성 발달수준과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 김윤정 (2008). DIT를 사용한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도덕판단력에 대한 연구. **한국치위생과학회, 8**(3) 199-205.

[24] 이옥화, 곽덕훈, 천세영, 나민주, 유평준, 임연욱 (2002). 대학 사이버 교육 제도 운영에 관한 교직원의 의견 조사. **교육정보방송연구, 8**(1) 135-163.

## 장 순 선

2007 충북대학교
컴퓨터교육과(교육학석사)
2013 충북대학교
컴퓨터교육과(교육학박사)
2013～현재 영동대학교 겸임교수
충북대학교 강사
관심분야: 인터넷윤리, e-러닝, 교수법
E-Mail: likesun0610@daum.net

## 이 옥 화

Univ. of Wisconsin-Madison
컴퓨터교육/교육공학 전공
(M.S., Ph.D.)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주)스마트스쿨 대표이사
관심분야: 교육정보화, e-러닝, 교수법, 미래교육
E-Mail: ohlee@cbnu.ac.kr